



## 영화 속 수의사

천명선 수의학 박사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Veterinarians, "Mostly Harmless"

페르난도 카마레로(Fernando Camarero)씨는 스페인 수의사로 공중보건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의학 또는 수의사와 관련된 영화를 수집한다. 2008년 스위스에서 있었던 '세계 수의사학회(3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에서는 1900년대 초반 말이 달리는 모습을 찍었던 활동사진을 소개했다. 정작 한국 사람과는 처음 이야기해본다며 반가워하던 그가 가지고 있는 수의학 관련

영화 데이터베이스에는 몇편의 한국 영화도 포함되어 있다. 토박토박 소리 나는 대로 한국 영화제목을 입력해 놓은 그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영화들을 우리도 함께 살펴보자. 영화 속에서 수의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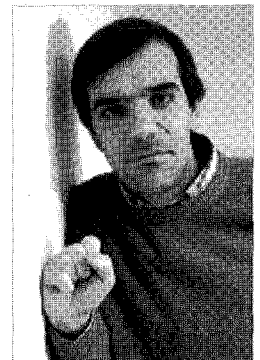


그림1. 페르난도 카마레로 (Fernando Camarero)

## 멋진 남자, 따뜻한 남자

일년에 고작 600명 남짓의 수의사만이 배출되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그들 모두가 임상분야로 진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수의사는 일반인들에게 드문 직업이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 수의사와 자주 접하지 못하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더욱욱 미지의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말수가 적고 주위의 사건에 동요하지 않으며 내성적인 인물들로 그려진다. 사실, 고객들과 하루 종일 많은 대화를 해야 하는 임상수의사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 만화는 꽤 여러 편이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물의사 닥터 스쿠루’, ‘애니멀 카운슬러’ 등에서처럼 조금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우리만큼 열정에 차있는 그들은, 세상에 적이라곤 없을 듯하다. 게다가 주인공들은 동물과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인물들에 비해 한국 영화에서 보여지는 수의사들은 약간은 우울한 모습들이다. 아마 그들이 수의사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영화에 등장하는 수의사들은 대개 모든 동물을 다 돌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 가장 선호 받는 남자 수의사의 분야는 단연코 동물원 수의사다.

10년 전 흥행작인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1998)’에서 춘희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동물원 수의사인 주인공(이름이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가 동물을 직접 진료하는 장면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다혜는 우연히 알게 된 인공을 좋아하게 된다. 끊임없이 말을 붙이려는 다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공은 무뚝뚝하기 그지 없다. 인공의 취미는 별을 관찰하는 것. 결국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 인공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하는 다혜의 질문은 엉뚱하기에 귀엽기까지 하다. “저기요, 애(강아지)가 갑자기 늑대 울음 소리를 냈어요. 밤에 잠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늑대가 아닐까요? 아니면 분명히 어디가 아프거나.” “코뿔소가 아픈가 봐요. 찌그러져 있어요.” “물개가 정말 이상해요. 물 바깥으로 떨어졌나 봐요.” 입가에 웃음을 띠게 하는 다혜의 질문들에도 인공은 “아가씨

는 공룡 같군요.”라는 대답으로 할말 없게 만듦 뿐이다. 안성기가 역할을 담당했던, 사랑을 믿지 않는 무뚝뚝하지만 어딘가 슬픔을 감추고 있는 듯한 이 멋진 남자는 다혜뿐 아니라 몇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리라.



그림2. 미술관 옆 동물원(1998) 포스터

그런가 하면 동물원 수의사로 바뀐 그의 업무 때문에 애인에게 소홀했다가 결국 다른 이에게 애인을 빼앗기고 마는 비운의 수의사도 있다. 현실에 존재했다면 아무리 바빠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듯한 외모의 소유자 장동건이 그 배역을 맡아 현실성을 떨어뜨렸지만 말이다. 영화 '패자부활전(1997)'의 수의사 민규가 바로 그 인물이다. 민규와 은혜는 서로의 애인이 자신들을 버리고 연인이 된 데에 복수를 하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가깝게 만들어 준 것은 동물원에 온 은혜가 민규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동물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민규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탓이다. 마음이 매우 따뜻한 이 남자는 은혜가 떠나간 자신의 연인에게 충격을 줄까 그게 오히려 걱정일 정도로 착해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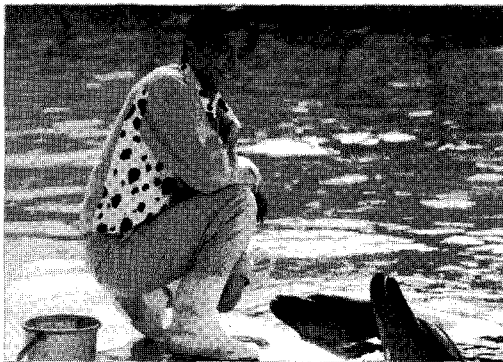


그림3. 패자부활전(1997) 중에서

그러고보니 외국 영화 중에서도 이런 착한 남자들이 수의사인 영화가 한 두 편 떠오른다.

'첫 키스만 50번째(50 First Dates, 2004)'에서 아담 샌들러가 연기한 헨리는 수족관의

수의사다. 코미디인 영화의 특성에 맞게 그가 수족관의 동물들을 진료하고 새끼의 출산을 돕는 장면은 다분히 과장되고 엉터리 같지만, 동물을 사랑하고 마음은 따뜻한, 자신의 애인에게 한결 같은 착하고 멋진 남자로 그려진다.



그림4. 첫 키스만 50번째(50 First Dates, 2004) 중에서

어류전문 수의사인 오토와 레오가 등장하는 '내 남자의 유통기한(The Fisherman And His Wife, 2005)'에서도 그 공식은 유지된다. 오토는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고기를 진찰할 만큼 환자들에 대해 애정이 깊다. 그의 열정과 순수함은 여자 주인공인 이다를 금세 매혹시킨다. 다른 친구인 레오는 오토만큼 실력이 좋지 못하다. 그는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하고 경연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잉어를 성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레오의 동물병원에서 오토가 아르바이트로 병리학적 검사를 하거나 야간에 관리를 맡는 장면은 수의사인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부분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선한 이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 듯하다. 생각해 보니 영화 속 수의사들이 대단한 상류층이나 부유한 인물로 그려지는 일도 드물다.



그림5. 내 남자의 유통기한(The Fisherman And His Wife, 2005) 중에서

## 때로는 소심한, 때로는 열기적인, 때로는 사랑스런 그녀

여성이 수의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가버리면 소용없을 여성에게 수의학을 가르치는 것은 낭비”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신문에 났던 독일 뮌헨의 수의과대학은 그로부터 100년도 지나기 전에 여학생이 학생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화에서도 여성 수의사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보이는데, 남성인 수의사들이 착하고 배려 깊은 남자로 한결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여성 수의사들은 좀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잠깐이기는 하지만 수의과대학이 등장했던 ‘사랑을 놓치다(2006)’의 연수는 문을 열면 낡은 실험실이 있을 것 같은 대학 건물, 룸메이트와 함께 쓰던 기숙사 방, 질끈 묶은 머리에 별로 멋 낼 줄 모를 것 같은 수수한 옷차림의 여학생이었다. 90년대 학번이라면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와 비슷한 이미지인걸’ 하고 생각할 만큼, 평범한 수의과 여학생의 모습을 그렸다. 짝사랑했던 남학생 우재를 떠나 보내고 10년이 흐른 후, 연수는 강아지를 잃어버린 꼬마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거나 혼자 병원의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수의사가 되어 작은 동네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만나게 된 우재와 연수가 첫 데이트 겸 출장 겸 떠나는 곳은 근교의 사슴농장. 번기의 물을 퍼서 머리를 감을 만큼 절박한 상태로 준비를 마치고 뛰어나간 우재와 은근히 들뜬 연수의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수의사가 등장하는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진료하는 모습은 상대에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는 계기가 된다. 가운을 입고 사슴을 진료하는 연수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우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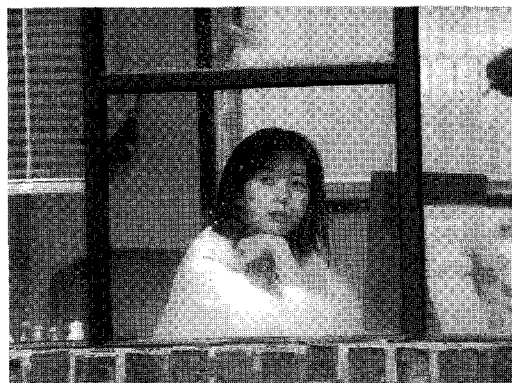


그림6. 사랑을 놓치다(2006) 중에서

마음도 그러했으리라.

저런 수의사가 정말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인물이 나오는 영화도 있다. ‘질투는 나

의 힘(2003)'에서 배종옥이 분한 수의사 성연은 성실하거나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수의사가 아니다. 성연과 그녀를 만나러 온 잡지사 객원기자 원상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허름한 동물병원에서 수술도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개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이다. 수술장갑도 끼지 않고 심드렁하게 "모든 수의사가 저처럼 장갑을 안 끼고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요. ... 내가 엉뚱한 걸 잘랐나? 워나 자궁이나 다 비슷하게 생겨서." 라는 놀랄만한 대사를 던져 보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든다.

사랑에 대해 큰 상처가 있어 스스로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이 없어 보이는, 그냥 되는대로 살고 있는 이 인물은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수의사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다.

의대를 지망했다 2지방인 수의대에 붙어 그냥 그냥 학교를 다녔을 뿐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연. 그래도 그녀가 영화 속에서 가장 애정을 보이는 대상은 자신이 제왕절개로 꺼낸 네 마리의 강아지들이다.

외국 영화에서 여성 수의사들은 어떨까? 미국 만화 시리즈 가필드의 리즈 박사, 만화에서는 속 눈썹이 길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아프지도 않은 가필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억지로 찾을 정도로 존은 리즈에게 빠져있다. 가필드를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만든 영화 가필드 (Garfield: The Movie, 2004)에서는 매력적인 제니퍼 러브 휴잇이 이 역할을 맡았으니 더 설명을 필요 없을 것.

## 대체로 무해함


더글라스 아담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는 지구에 대해 'mostly harmless' 라고 간단히 표현해 지구인인 주인공을 허탈하게 만들고 만다. '대체로 무해' 하다니 그 얼마나 재미없는, 무의미한 표현인가. 그러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수의사들을 표현하자면 사실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대체로 무해함'.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수의사들의 모습은 그들이 주인공이든 혹은 주변인물이든 그들에게 악역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동물의 건강을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대충이 던지는 따뜻한 눈길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 아닐까.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 선한 마음은 그들의 진실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역시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의 우리는 어떤가? 선하고 진실된 바로 그 사람인가? 



그림7. 영화 가필드(2004) 포스터

\*관련 사진 출처는 네이버 영화정보입니다.